

레드바이오 창업 거점 ‘JB바이오밸리센터’ 개소

전북경진원 선정... 바이오 창업 중심지 도약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28일 ‘JB바이오밸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바이오 창업기업의 도약 시작을 알렸다.

JB바이오밸리센터는 올해 경진원이 새롭게 시작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의 전북센터로서 지역 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육성 및 핵심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경진원이 전국 6개 최종 주관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JB바이오밸리센터 개소는 전북도와 경진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확대와 창업생태계 조성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지역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진원은 센터 개소와 함께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에 대한 실증·임상연계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인체 유래물 분석, 빅데이터 기반 검증, 임상 유효성 평가 등 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병원 연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진원은 JB바이오밸리센터를 통해 도내 창업 7년 미만 바이오헬스 기업을 발굴하고, 인프라 활용 및 지역 산업 현황, 혁신 자원 조사 등을 본격 추진 중이다. 신규 12개 사가 센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특히 이 중 7개 사는 전북 도와 기업으로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점을 개설하게 된다.



JB바이오밸리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에 자리잡고 있는데, 기존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국가 지원 사업의 종료로 공간 활용이 제한되던 시설을 새로운 사업과 공간으로 재구성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을만 하다.

JB바이오밸리센터 개소식에는 윤여봉 원장을 비롯한 전북도 관계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전북대학교병원 및 원광대학교병원 관계자, 바이오 창업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성대한 시작을 축하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와 바이오 스타트업 VC 관계자를 초청해 바이오헬스 포럼을 개최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윤여봉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JB바이오밸리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내 레드바이오 기술창업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해외로 진출시켜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같이 받자’

JB플랫폼, 친구 소개로 JB플랫폼 체험시... 특별 굿즈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운영하는 금융에듀테인먼트 JB플랫폼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같이 받자’ 친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JB플랫폼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실생활 금융을 쉽고 직관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 공간으로 VR 프로그램, 금융 성향 진단 금융 퀴즈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감나게 금융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디지털 금융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JB플랫폼을 지인에게 소개하고 그 지인이 체험에 참여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한정 굿즈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학 시즌을 활용해 친구와 함께 디지털 금융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경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참여형 금융교육을



통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에듀테인먼트 JB플랫폼은 전북은행 본점 1층에 위치한 디지털 금융체험관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운영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이나 체험 신청은 JB 플랫폼 홈페이지 및 전북은행 사회공헌부(063-250-7465, 7405)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

우리마을 희망동행 실시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지사장 홍종기)와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지난 27일 무주군 무주읍 관내 ‘서면마을 할머니 노인정’을 찾아 우리마을 희망동행 행사를 실시했다.

‘우리마을 희망동행’은 고령화 등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역 농·축협과 협업하여 조합원센터, 영농지원센터 등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영농화와 함께 일손 돕기를 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사회공헌사업이다.

농협자산관리회사 홍종기 전북지사는 “어려운 농촌마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마을 활력 부여를 위해 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피감사인 권익보호... 한국전기안전공사, 특임감사인 위촉

감사 유경험자 17명으로 구성... 피감사인 권익보호 등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8일 완주군 본사에서 ‘2025년 특임감사인 위촉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특임감사인 제도는 감사실 근무 경력이 있는 전출 감사인으로 구성된 내부 전문가 그룹이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청렴 및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공사 감사실은 전출감사인 중 17명을 특임감사인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실무경험과 현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로 실효성 있는 감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임감사인 △내부부호인 지원을 통한 피감사인 권익 보호 △감사인 권한

남용 등 감사윤리 감시 △감사 사안별 자체감사 참여 △감사 자문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허정환 상임감사는 “특임감사인은 감사 실무를 경험한 내부 전문가로서 조직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 감사 활동으로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사 감사실은 정기 교육과 감사 활동 사례 공유, 성과 환류 등을 통해 특임감사인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공, 임원 직무청렴계약

사장·감사·상임이사 전원 참여... 청렴 확산 솔선수범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직무 관련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열고, 김인중 사장, 이광대 감사, 상임이사 전원이 임원 직무청렴계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공사가 2006년 제정한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여 전사적인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무청렴계약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

상 행위와 관련 금품수수·이권 거래·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 계약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인중 사장은 “이번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계기로 공사 임직원이 투명하고 선량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기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 “특히,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감결과 부패행위 근절을 통해 농어민에게 인정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